AN news 에이앤뉴스

Architecture & Design newspaper

AN Newspaper Architecture, Space Design, Art & Lifestyle, Culture & Design Newspaper, AN news Group AN Press, World Design Media Forum, AN Architecture Design Award, AN Forum, AN PR Agent

MARCH 31. 2017. 건축디자인 대표 네트워크 신문 》

정가 10,000원

ISSN 2093-3517

YTN PLUS

UIA 2017 SEOUL

서울을 빛내는 스마트형 수직도시의 화려한 탄생, 123층, 555m의 거대한 몸짓으로 등장한 세계 5위의 초고층빌딩 롯데월드타워(LOTTE WORLD TOWER)…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미를 담은 외관 디자인과 최고층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 시민과 호흡하고 공유하는 퍼스트 랜드 마크로 도시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

암스테르담 명품거리를 빛내는 유리 벽돌의 파사드로 구성된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 크리스털 하우스(CRYSTAL HOUSES)… 과거의 유산 속에 반영된 현대성과 지역성을 글로벌 브랜드와 절묘하게 결합시켜

CRYSTAL HOUSES, design by Winy Maas/ MVRDV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 파에나 지구의 새로운 예술문화센터인 파에나 포럼과 바자, 주차장(Faena Forum, Faena Bazaar and Park in faena district miami beach)… 원형과 육면체로 구성된 두 개 역동적인 볼륨의 이색적인 포럼 공간, 판테온에서 영감을 받은 돔형 구조를 통해 공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문화를 재해석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건축이 돋보여

기념비적인 포물선형 구리지붕의 형태를 보존하고 용도에 맞게 재구성한 런던 디자인 뮤지엄(The Design Museum, London), 해안가 풍경과 대화하는 떠 있는 집, 일본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의 하피(Hafye)… 경사진 대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능적으로 분배한 공중주택의 묘미, 빛과 바람의 여유로운 흐름이 전망과 어우러질 수 있어

2017 프리츠커상에 스페인 건축가인 라파엘 아란다(Rafael Aranda), 까르메 피헴(Carme Pigem), 라몬 빌 랄타(Ramon Vilalta) 공동 수상… 현대적인 재료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보편적이면서도 시적인 건축을 구현해, 을지로 7가의 '아리움사옥(구 서산부인과 병원)', 한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로 등록문화재로 신청될 수 있어

독일 자를란트 지역의 이색적인 전망 플랫폼, 자르 폴리곤(Saarpolygon)… 변화한 자르 탄전을 기념하는 다이내믹한 3차원의 다각형 구조물, 자르 계곡을 조망하는 미래형 게이트, 바람을 형상화 한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집, 제주 여행자들의 머무름을 손짓하는 윈드 하우스(WIND HOUSE)로의 유쾌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공간 산책에 빠지다, 두 개의 달과 별자리가 어우러진 근생 빌딩, 일산의 투문정션(TWO MOON)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만리동 광장,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되게 비추는 만화경 같은 홍콩 골든 버블즈(Golden Bubbles), 세운상가군,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 10년 이상 지체된 세운4구역 사업은 '서울 세운 그라운즈'로 본 궤도에 올라, 건축가 김태만의 도시건축 칼럼 이전 시대의 도시, 이 시대의 도시, 그리고 그 너머,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제 3차 조정이사회 및 제 130차 UIA 이사회(130th UIA Council Session) 코엑스에서 열려,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 서승하 회장 인터뷰

문화와 시각예술, 배움이 어우러진 평창동 미술문화 공간의 탄생, 탈중심: 수평차원의 다원작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개념으로 한 'Decentering the Center' 당선, "문화의 숨: 건축(Air Of Culture: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건축문화정책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f Architecture & Cultural Policy 2017),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2017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우리 집에 놀러 와(Play at home)'란 주제로 기업의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협업한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해외에서 주목한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귀국전으로 다시 태어나, 가시와 그림자로 대표되는 송번수(Burnsoo Song) 작가의 50여 년간의 화력을 보여주는 '50년의 무언극(Pantomime of 50 Years)', 미술관에서 차를 마셔볼까? 현대판 무릉도원으로 탈바꿈한 전시장에서 "다 함께 차 마시기",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 2013–16, '삼라만상 : 김환기에서 양푸둥까지'.

진화하는 교통과 도전받는 공간, 2040년 미래 서울을 대비하는 어젠다와 도시 발전 방향을 심도 깊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 종로 체부동 성결교회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최초 등록, 벽돌쌓기 방식, 주변 한옥들과 조화 등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87년 된 근대건축물자산으로 원형 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비비안안 발행인 칼럼_ 아치 다리 아래 네레트바 강은 역사와 함께 반짝인다.

Seoul Sewoon Grounds

Therefore, rather than considering the alley as an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we use it as an impetus for design that will form a unique urban development for the future.

세운4구역 국제 지명현상 설계공모의 당선작인 서울 세운 그라운즈(네덜란드 KCAP, 루드 히에테마)는 땅이 갖는 역사와 도시의 조건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 당선작은 볼륨의 무게감을 줄이는 입면 및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솔리드한 부분을 투명한 유리 재질 부분과 분절시켜 상대적으로 적은 매스로 보이게 했다. 세운 그라운즈는 전체 볼륨의 적절한 분절과 연결을 통해 주변과 적극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하고, 소단위 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page 10

서울을 빛내는 스마트형 수직도시의 화려한 탄생, 123층, 555m의 거대한 몸짓으로 등장한 세계 5위의 초고층빌딩 롯데월드타워(LOTTE WORLD TOWER)…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미를 담은 외관 디자인과 최고층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 시민과 호흡하고 공유하는 퍼스트 랜드 마크로 도시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

》 국내 초고층 역사의 신기록을 써내려간 롯데월드타워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지난 2월 9일 사용승인을 받고 4월 본격적인 개장에 들어갔다. 롯데월드타워는 지하 6층, 지상 123층 규모에 555m로 123층 타워를 포함해 연면적 80만5,872.45㎡에 총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828m), 2위인 상하이 타워(632m),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클락 타워(601m), 4위인 911테러로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뉴 원 월드트레이드센터 541m에 이어 세계 5위 최고층 건축물이다.

롯데월드타워는 1987년 처음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010년 11월 착공해 연인원 5백만 명 이상이 투입되어 준공까지 만 6년 3개월, 자그마치 2천2백80일의 공사 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부분의 초고층 프로젝트는 공적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초고층타워가 투자대비 수익성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는 민간 기업이 주도로 사업 전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가 지어지는 일련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면, 그 높이만큼이나 건축, 건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왔다. 2014년 4월 국내 건축물 최고 높이인 305m에 도달하였고, 이후 2015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100층(413m)을 돌파했다. 2015년 12월 22일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123층에 마지막 철골 구조물격인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해 10월에는 매끈한 외관을 감싸는 2만개 이상의 커튼월이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사용된 5만 톤의 철골은 파리의 에펠탑 7개를 지을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이다. 사용된 22만㎥의 콘크리트로는 32평형(105㎡) 아파트 3천5백 세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40여만 대의 레미콘 차량(8m)을 한 줄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다. 75만 톤의 타워 무게는 서울시 인구 1천만 명(75kg 기준)과 맞먹는다. 대지면적은 축구장의 12.2배이며, 단지 전체의 연면적은 80㎡로 축구장(105×68m) 115개를 합친 규모이다. 건설 기간 중 현장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소비한 쌀도 1480톤으로 공기밥으로 환산해 본다면 1억4800 그릇에 달한다.

총 4조원이 투자되어 건설된 롯데월드타워는 생산유발효과가 4조4천억이었고, 현장에는 일 평균 3천5백여 명이 투입됐다. 지난 2010년 시작돼 연인원 약 501만 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상시 고용 예상인원은 36만 명(20년간 누계)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4년 10월 오픈한 롯데월드몰에서는 파트너 사를 포함해 6천여 명 가량의 고용이 창출됐다. 롯데 측은 롯데월드타워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 롯데월드몰과의 시너지로 생산 유발효과 2조 1천억 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원뿐만 아니라, 취업 유발인원도 2만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를 통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픈 이후 롯데월드타워는 2021년까지 연 평균 5백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을 잠실과 송파구로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의 유치와 소비 지출에도 적지 않게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박현철 롯데물산 사업총괄본부장은 "롯데월드타워의 개관으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호흡하고 공유하는 퍼스트 랜드 마크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롯데월드타워의 준공에서 앞서 다양한 교통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현재 이행 중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잠실 사거리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총 5천3백억을 들여 2호선 지하광장 확장 및 8호선 광장 연결통로 신설, 환승 주차장 진출입 램프 위치 조정, 잠실길 지하화, 신규 신호기(TSM) 33개소 및 가변 전광판(VMS) 21개소 설치, 지하 자전거 주차장 건립, 탄천변 동측 도로 확장공사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터미널형 '잠실광역환승센터'를 개통해 지상의 도로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환승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현재에는 17개 버스 노선이 운영 중이며 일 평균 2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환승센터를 이용 중이다. 롯데월드타워는 개관 이후에도 1년간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저층부를 견고히 지지하는 예술과 문화,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의 '포디움'(5~12F), 14층부터 114층까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프라임 오피스'(14~38F), 223세대의 최고급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42~71F)과 세계 최고 수준의 초특급 호텔인 '시그니엘 서울'(76~101F), 고층부는 프라이비트 오피스인 '프리미어 7'(108~114F)로 구성돼, 117~123층은 글로벌 톱 3 전망대인 서울 스카이가 들어서

롯데월드타워는 그 웅장한 높이만큼이나 한국적 곡선미를 자랑으로 삼는다. 도자기와 붓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상부로 향할수록 끝이 점점 좁아지는 원뿔 형태로 한국의 전통 오브제의 유연한 형태와 단순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부드러운 곡면 외관을 표현하기 위해 2만 1천여 개의 커튼월과 4만2천여 장의 유리창이 부착되었다. 유려한 커튼월 사이에 설치된 수직 안전핀은 햇빛의 반사를 낮춰주는 동시에 타워의 리듬감 있는 외관을 만들어낸다. 타워 중심부를 다이내믹하게 가로지르는 두 줄의 노치(notch) 구간은 타워의 날렵함을 돋보이게 만들며 한강과 남산, 서울의 중심부를 향하고, 밤이 되면 LED조명을 통해 은은한 야경미를 한껏 드러낸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전통 한옥 처마의 곡선미와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였다. 타워 상층부인 435m의 107층부터 203층에서 55m의 최상부 첨탑 구조물에 달하는 총 120m 구간에는 철골 자재를 반복 사용한 다이아그리드(dia grid) 공법을 적용해 도심지 스카이라인의 멋스러움을 더했다.

타워는 저층부와 중고층부로 나뉘어 여러 용도들로 구성된다. 5층부터 12층을 구성하는 '포디움(Podium)'은 예술과 문화,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의 공간이다. 내부에는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프리미엄 헬스케어센터와 피트니스센터, 에스테틱 클리닉, 파이낸스센터, 홍보관, 갤러리 등의 복합 서비스시설이 입점해 있다. 특히 기존 에비뉴엘 건물 8, 9층이 타워의 8, 9층과 연결돼 있어 면세점이 추가 확장된다. 14층부터 38층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프라임 오피스로 계획되어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 등이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맡는다. 31층의 'Sky 31'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습, 교육, 회의, 휴식이 가능한 복합기능공간으로 오피스 근무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샐러던트(Salaryman+Student)의 자기계발 수요에 대응하는 회원제 학습공간이 마련된다. 42층부터 71층은 업무와 사교, 거주와 휴식을 겸하는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Signiel Residence)'로 구성된다. 총 223세대에 전용면적 약 139~842㎡ 규모로 미래지향적인 초고층 주거시설로 6성급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색 있다. 이어진 76층부터 101층까지는 국내 최고 높이, 최고 수준의 6성급 호텔로 손꼽히는 '시그니엘 서울(Signiel Seoul)'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50km 밖의 인천 앞바다가 보일 정도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한편, 108층부터 114층까지 7개 층은 1개 층을 모두 사용하는 VVIP만을 위한 국내 최고의 프라이비트 오피스 공간이자 사교 공간인 '프리미어 7'이 마련된다.

롯데월드타워의 가장 높은 곳인 117층부터 123층까지는 전망대인 '서울 스카이(Seoul Sky)'가 들어서 타워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서울 스카이는 개장 기준으로 보면 500m로 세계 3위이다. 타워 486m의 120층에 마련된 야외 테라스로 나가면 외부 공간에서 서울의 경치를 두루 감상할 수 있다. 상부 전망대인 118층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유리로 된 스카이데크가 있어 478m의 아찔한 높이에서 발 아래로 서울과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45㎜ 접합 강화유리로 제작된 스카이데크는 1㎡당 1톤의 무게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스카이데크는 세계 초고층 빌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데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바 있다. 서울 스카이 전망대는 초속10m로 2개 층을 동시에 운행하는 더블데크 엘리베이터가 있어 손쉽게 상부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껏 접하지 못한 초고층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롯데월드타워에는 피난안전에도 세심한 고려를 했다.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상 피난 및 대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을 20층마다 총 5개소(22/40/60/83/102층)를 두었다.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은 내화 및 불연재로 되어 있고 가압제연설비 시스템이 적용돼 벙커에 버금갈 정도로 견고하며, 화재 시 불이나 연기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곳에는 화재용 마스크와 공기호흡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심장 충격기 등이 설치돼 있으며, 안전한 대기를 위해 화장실과 급수시설, 방재센터와의 직통전화 등도 구비돼 있다. 또

세계 5위의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가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개장에 들어갔다. 그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23층 규모에 555m로 123층 타워를 포함해 연면적 80만5,872.45㎡에 총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착공부터 준공되기까지 6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숱한 내외부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건설 역사를 써내려갔다. 외관을 부드럽게 감싸는 2만1천여 개의 커튼월과 4만2천여 장의 유리창은 LED조명과 어우러져 리듬감 있는 건물의 미적 흐름을 엮어낸다. 타워 상층부인 435m의 107층부터 203층에서 55m의 최상부 첨탑 구조물에 달하는 총 120m 구간에는 철골 자재를 반복 사용한 다이아그리드 공법이 적용되어 볼 만하다. 특히 117층부터 123층까지는 전망대인 서울 스카이는 롯데월드타워의 자랑이다. 타워 486m의 120층에 마련된 야외 테라스로 나가면 외부 공간에서 서울의 경치를 두루 감상할 수 있고, 상부 전망대인 118층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유리로 된 스카이 데크가 있어 478m의 아찔한 높이에서 발 아래로 서울과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2면 계속〉

1등 당선작 KCAP Architects Planners

1등 당선작 KCAP Architects Planners

세운상가군,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 10년 이상 지체된 세운4구역 사업은 '서울 세운 그라운즈'로 본 궤도에 올라, 세운상가군 일대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작·개발 공간과 시민문화시설, 세운~청계·대림상가를 잇는 공중보행교로 조성돼

서울 세운상가군 일대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략적 거점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일명 '메이커시티(Maker City)'로의 진화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를 창의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제작·생산과 판매, 주거와 상업, 문화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종로에서 퇴계로를 잇는 세운상가군은 총 44만㎡ 면적에 1,600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며, 총연장 1km에 달하는 7개 건물로 이루어진 곳이다. 세운상가군은 지난 60년대에 처음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져 70~80년대 국내 전자와 전기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던 곳이지만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세운상가의 저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유명해진 송호준 씨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를 들리며 한 청년 메이커는 세운의 기술 장인을 멘토로 삼아 IoT 조명을 만들기도 했다. 세운상가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 전자 스마트시계 역시 이미 해외에서 400억 원의 주문을 받는 스타트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세운상가군 일대에 세 차례에 걸쳐 거점 공간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선도할 거점공간이 올해 3단계에 걸쳐 차례로 문을 연다. 3월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교육,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4대 전략기관이 입주하고, 5월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작·개발 공간이 조성된다. 8월에는 시민문화시설과 세운~청계·대림상가의 공중보행교가 조성을 완료하게 된다. 오는 2019년 12월에 삼풍~진양상가의 보행교가 완공되면 청계천에서 종묘~남산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남북보행축이 결실을 맺는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개발 고도의 문제로 인해 10년 넘게 지체되어 왔던 '세운4구역'을 포함해 세운상가군 옆의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171개 구역의 점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운상가군에서 출발한 창의 제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이와 연계해 산업과 주거, 문화가 복합된 메이커시티의 한 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미 서울시는 2014년부터 도시의 역사성을 살리며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171구역)로 분할 개발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운상가와 종로4가 네거리 및 청계4가 네거리를 4개축으로 하는 32,223.7㎡ 면적의 세운4구역이 역사적 자산과 도심 산업이 함께 균형을 맞추는 독특한 도시 복합단지로 2013년에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세운4구역 국제지명 초청공모를 통해 '서울 세운 그라운즈' 당선… 2021년 착공해 2023년 준공 예정, 도시재생과 개발이 공존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작용하게 될 것

세운4구역은 그동안 대규모 철거 재개발 계획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2004년에 수립한 최고높이 122.3m로 제한한 건축 계획안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등 인접한 역사경관이 훼손된다는 의견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층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주민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는 구역별 주민면담 300회, 문화재위원회 심의 5년(종로변 55m 이하, 청계천변 71.9m 이하), 정책자문단 등 회의 60회 등 오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2016년 7월에 이르러 지역과 주민을 존중하는 창의적 설계 계획으로 확정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운4구역 개발은 중앙에 대형 광장을 두고 호텔과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연면적 28만㎡ 규모의 상업시설을 두는 것이 주안점이다. 무엇보다 세운4구역 내에서 보존 가치를 지닌 역사건물 8채와 옛 골목길 등 도시조직 일부를 보존함으로써 장소의 역사성과 세계유산인 종묘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유지한다는 것이 특색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통합구역인 세운4구역은 세운상가군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역사도심의 위상에 걸 맞는 도시재생과 개발이 공존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뭇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다.

세운4구역 사업 진행의 구체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에 세운4구역 국제 지명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KCAP(대표 루드 히에테마)의 '서울 세운 그라운즈(Seoul Sewoon Grounds)'를 당선작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아울러 2등에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태만), 3등은 최문규(연세대학교 교수)의 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국제지명초청으로 국내외 8개사가 참여한 이번 공모의 심사에는 온영태(경희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Peter Schubert(Enned Architects international 대표), Cui Kai(China Architecture Design & Research Group 대표), 김용미(㈜금성건축사사무소), 승효상(건축사무소 이로재), 김용승(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 예비심사위원) 6인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심사는 역사적 가치의 존중, 보행중심계획, 경제성 극대화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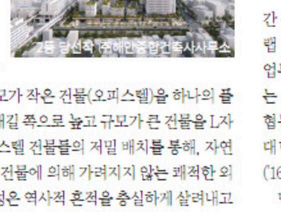
세운 4구역은 서울의 대표적 역사유산인 종묘와 남산을 잇는 상징적 녹지축과 광화문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도심 기능축이 교차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아울러 세운상가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운구역 재정비 사업을 선도하는 사업 구역으로서의 그 의미도 작지 않다. 이러한 중요성을 토대로 공모지침 역시 세운 4구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역사도심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요구하고 있다.

진행된 심사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지명 초청된 8개 팀은 높이 제한과 최대 용적 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도 간의 유기적 연계와 배각/관리 단위별 분리 배치, 보행접근이 쉬운 지하/지상부의 밀도 있는 이용과 지하유구의 보존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나름대로 개성 있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침이나 법규적 제한에 맞지 않거나 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개안을 제외한 3개안을 우선 선정하였고 그 장단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하였고, 3개안 모두 공모의 취지와 세운 4구역의 역사적, 도시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침에 명기된 요구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충실히 제시하였다"고 심사 과정을 전했다.

1등 당선작 KCAP Architects Planners

세운4구역 공모의 1등 당선작(KCAP Architects & Planners)은 땅이 갖는 역사와 도시의 조건에 대한 박휘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운 4구역에 가장 적합한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당선작은 건물이 자칫 주위에 위압감을 주는 육중한 매스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륨의 무게감을 줄이는 입면 및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솔리드한 부분을 투명한 유리 재질 부분과 분절시켜 상대적으로 적은 매스로 보이게 하고, 각 동별 같은 디자인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재질을 선택함으로써 각동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전체 볼륨의 적절한 분절과 연결을 통해 주변과 적극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한 점, 소단위 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 점, 과거의 흔적과 현존하는 건물 일부를 남겨 장소의 지속성을 유지한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도심산업을 수용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그것을 저층부와 지하공간에 배치한 점이 당선작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선작에 대해 세운상가 지붕과의 연결 통로, 일부 건물의 산만한 입면 구성 등 조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도심 산업을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공간의 적극적 활용하고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등 공공부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2등작(㈜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는 확연히 열린 ㄷ자형 중정형 배치로 독특한 배치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중정공간은 마스터플랜 전체의 정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최대한 저밀한 건물 배치로 접근했다. 해안건축의 안은 청계천과 세운상가 건물 쪽에 낮고 규모가 작은 건물(오피스텔)을 하나의 플랜트 박스와 같이 분산 배치하고, 종로와 배오개길 쪽으로 높고 규모가 큰 건물을 L자형으로 밀집 배치하고 있다. 중정 공간 내 오피스텔 건물들의 저밀 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라운드의 재구성된 도시조직은 높은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쾌적한 외부환경을 가지게 된다. 저층부와 지하 공간 구성은 역사적 흔적을 충실하게 살려내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해안건축의 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양자의 대비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종묘 쪽에서의 시선에 노출되는 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종로와 배오개길에서의 시각적인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세운4구역 초청공모에 참여한 해안건축의 김태만 대표는 "도심 재개발에서는 수백 년의 앞을 내다보는 자생적인 도시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옛 도시조직이 주는 다양성이 이곳의 장점으로 살아나고, 또한 현재와 미래의 프로그램 요구와 절묘하게 공존할 수 있는 입체적인 도시 조직, 환경적으로 살아있는 도시조직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계 의도를 밝혔다.


2등 당선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3등 당선작 최문규

심사위원회는 3등작(최문규 교수)에 대해서 "도시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침이 요구하는 사항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어 결함으로 지적할만한 것도 없지만 다른 안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 또한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모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당선작 및 출품작을 6~17일 2주간에 걸쳐 서울시청 로비에 전시했다.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설계비는 약 44억5천3백만 원이고 추정 공사비는 5천82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세운4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세운상가군 올해 8월까지 3단계 걸쳐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거점 공간으로 탄생… 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을 외부와 연결하는 문화시설도 조성돼

한편, 서울시는 세운4구역 공모 당선작을 알리면서 '다시·세운 프로젝트 창의 제조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보행·산업·공동체 재생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의 1단계와 삼풍상가~풍전호텔~진양상가에 이르는 2단계에 걸친 사업이 추진된다. 3개 분야의 보행은 종묘~대림상가 공공 공간 조성공사('16.3.~'17.8) 산업은 거점 공간 활용계획('16.5.~'17.2)과 세운 리빙랩 시범운영('16.9.~12), 4대 전략기관 업무협약('16.11)으로 구성되며, 공동체는 다시세운시민협의회의 운영과 수리협동조합의 설립('16.11.), 세운상가는 대학('16.6.~12)과 주민공모사업('16.8.~12)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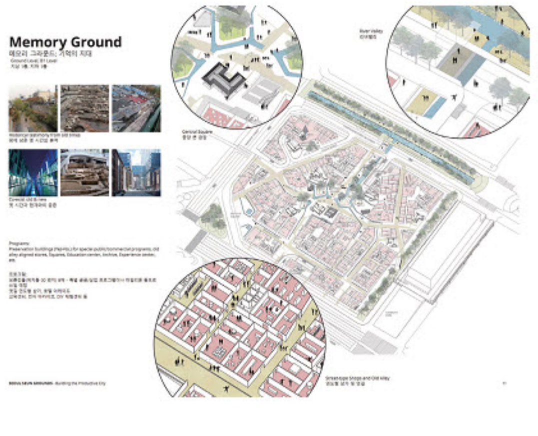
먼저 청년 스타트업과 메이커의 창업 기반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씨즈, 팹랩서울의 4대 전략기관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아세아상가 3층에는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들어서고, 세운상가의 축적된 시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지하 보일러실에는 제작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작소가 조성된다. 두 번째로 5월에는 세운~대림상가 구간의 보행데크 옆에 세운 메이커스 큐브라는 제작·창작시설 21개소(청년스타트업 입주 및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공간)와 전시·체험 공간 8개소(세운전자박물관, 테크 스토어, 테크 북카페 등 시민메이커를 위한 체험 및 관람을 위한 공간)를 포함해 총 29개 창업 공간이 조성된다. 이곳에서 실제 스타트업이 입주해 드론개발실, 스마트의료기개발실 등의 창작, 개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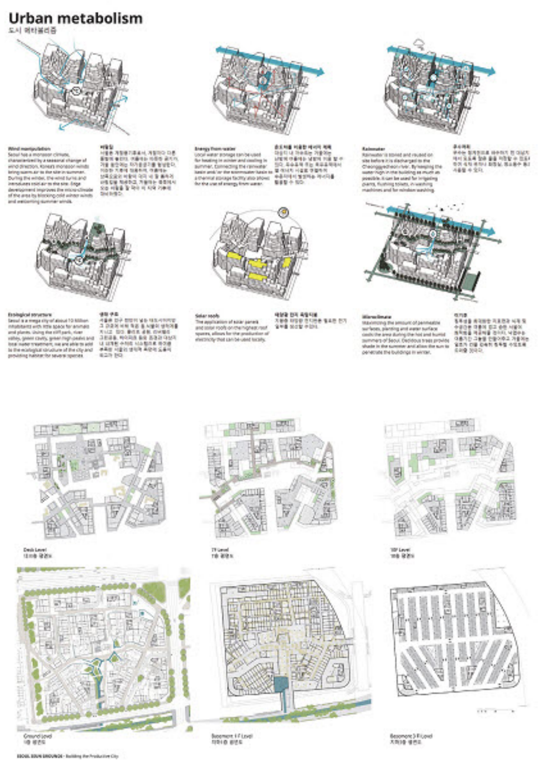
이러한 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을 외부와 연결하는 문화시설의 조성도 눈여겨 볼 점이다. 남산과 종묘를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세운상가 옥상에는 세운옥상이라는 전망 쉼터가 오는 8월에 생겨나 도심 속 이색 명소로 자리 잡게 된다.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됐던 공중보행교(세운~청계상가)도 세운보행교로 새롭게 생겨나고, 옛 초록띠공원은 지상부는 세운광장으로 지하부는 다목적홀과 문화재전시관으로 변모되어 시민들을 맞는다. 지하 공사 중에 발견된 조선시대 중부관아터와 유적은 한양도성 내 최초의 현지 보존방식 전시관으로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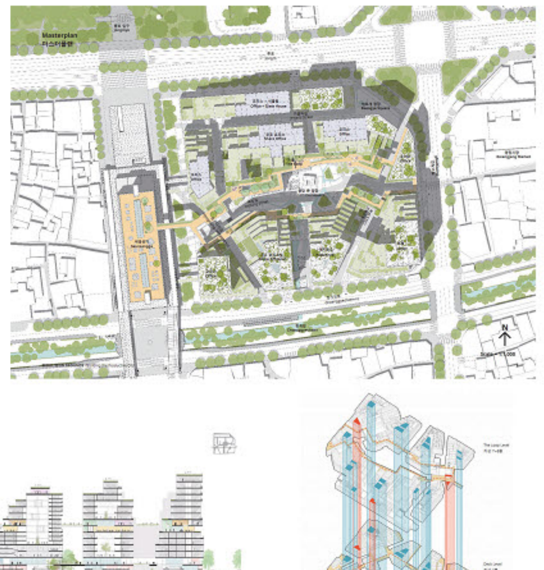
세운4구역은 종묘의 역사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최고 높이의 문제와 초고층 개발계획의 좌초 과정을 통해 오랜 진통을 겪어왔다. 기존 건축 계획안이 문화재청에 의해 부결된 이후 10여년 넘게 표류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물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지역의 절실한 목소리가 서울시에 반영되어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발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80년대부터 도심 제조 산업의 성공신화를 만들었던 세운상가군이 청년들의 혁신성과 기술 장인들의 노하우, 미래기술이 결합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말처럼 세운4구역은 주민들의 오랜 갈등과 반복을 마무리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간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은 물론 문화재청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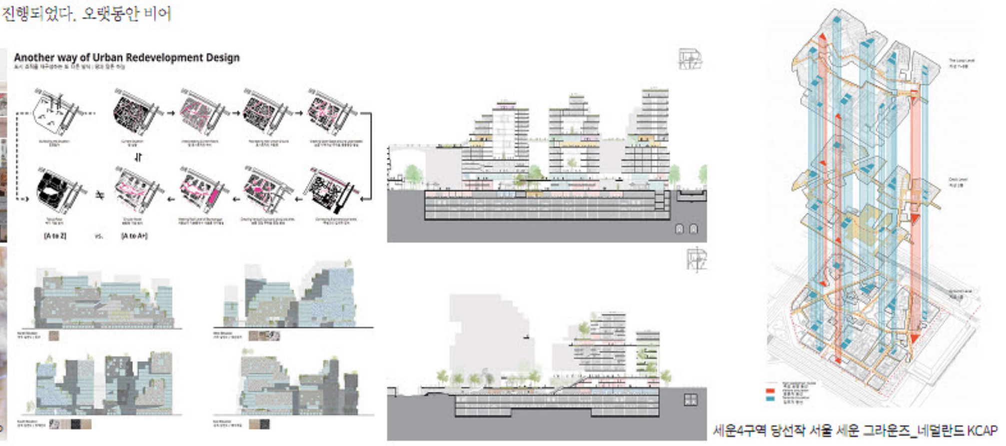
비비안안·김용삼 편집자
최정민·박정현·이영호 기자
루드 히에테마 KCAP Architects & Planners 대표
서울특별시 양병현 역사도심재생 과장,
이창구 다시세운사업 팀장,
이광구 다시세운관리 팀장, 안재혁 도시공간개선반장, 육근형 설계공모 팀장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세운4구역 당선작 서울 세운 그라운즈_네덜란드 KCAP



세운4구역 당선작 서울 세운 그라운즈_네덜란드 KCAP

건축가 김태만의 도시건축 칼럼
이전 시대의 도시, 이 시대의 도시, 그리고 그 너머

서울을 매력적이게 하는 공간적 요소들은 무엇일까?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피하다면, 비슷한 체급의 도시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따져야 할 터이다. 도시를 장악하는 산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내사산과 외사산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자리 잡은 건물 군들, 도시조직들. 서울을 서울답게 인식하게 하는 지리적 특성이다. 이 도시를 인식하고 규정짓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서울을 조감해보며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한다면 다양한 도시조직들의 병치를 들 수 있다. 4대문 내의 도시조직과 인접한 강북권의 도시조직이 다르고, 그리고 한강 너머 강남의 도시 조직들이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서로 다른 시대를 웅변한다. 이런 병치 자체는 많은 유럽과 아시아 도시들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내부로 더 들어가고 도시가 지내온 시간과 건물들의 양상을 살펴야 의미 있겠다.

이 도시조직에 주목해 보자. 분명 서울은 20세기 후반에 전쟁, 근대화, 산업화를 겪으며 옛 도시조직을 돌아볼 여유도, 공감대도 없었다. 문득 눈을 들어 성장의 시기가 끝났음을 알아차린 21세기 초반에, 수백 년 명맥을 이어온 이 도시의 옛 조직들이 이제 우리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도시가 급속도로 현대적인 가로 조직과 국제적인 스타일의 건물들로 채워지는 것을 희망했고 그것이 발전이라 공감했다. 이제 고도성장의 신화는 끝나고, 이 도시가 가진 유산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이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공유된다. 육식형 도시와 초식형 도시 사이 어딘가, 쇼윈도 도시와 역사 도시 사이의 어딘가에서, 우리가 기대고 우리를 우리답게 할 레거시가 무엇인지 공감하는 시기. 두바이와 상하이 황푸 강가의 첨단 도시를 동경하는 의식도 여전하지만, 런던의 시티와 뉴욕의 맨해튼에 중첩된 시간의 켜를 매력적으로 보는 것처럼, 서울의 사대문안의 누적된 시간들, 그 공간적 자산들을 놓고 꾸는 꿈도 커지고 있다.

2007년의 국제공모 이후 다시 세운4구역의 국제공모가 추진된 이 10여년의 시기가 그런 공감대의 변곡점들을 지내온 시기이기도 하다. 문화유산과 오랜 도시조직과 불과 수십 년 된 근대유산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포스트 산업 시기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아프게(즐겁지 않은 인식도 여전하니) 인식하는 시기. 고만고만한 첨단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을 공감한다. 보존될만한 유적들이 정교하게 보존되고, 도시조직의 흔적이 현대적으로 재탄생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구조가 병치되는 헤테로피아적 모습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첨단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가질 유산, 미래가 가질 아름다운 과거가 없을 터.

가히 이 시대는 폐허-중독의 미학이 지배하는 시대라 할 만 한다. 성장이 꺾인 육식성 모더니즘이 급격히 잡식성 다원주의로 변해가는 듯, 오래된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정서는 지나간 성장신화의 시대를 추억하고, 더 이상 쑥쑥 자라지 못하는 우리네 살림을 위로하는 것 같다. 그래도 좋다. 그렇게 생긴 복합성과 중첩이 이 도시를 매력적으로 할 것이니. 새롭고 거대한 것은 경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친근함의 대상은 아니다. 새로운 것이 내가 향수할 무엇과 결합되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연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공간 역시 그러한다. 세운4구역이 가진 도시조직의 가치는 거기에 보존할 변변한 유적이나 근대건축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놓은 친근함의 집적이기 때문이다. 좁은 가로, 하늘이 보이는 적절한 비례, 지형과 수로를 따라 자연스레 만들어졌을 굽이진 길들. 도시가 탄생한 이래 수만 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그렇게 도시조직을 만들어왔다. 작은 스케일의 건물들, 가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감, 지금은 박제되어버린 산업과 활동들이 그곳을 매력적이게 했었다. 여기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레이어, 미래 시대가 참조할 레이어를 성공적으로 중첩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세계관으로 이상의 공간 내에 현재와 미래 도시조직을 자유로이 상상했다. 장소에 다소 무관하게. 이제 축적된 도시조직이 풍부한 곳에서는, 파피루스의 시대에 그 희귀한 자원에 여러 번 겹쳐 쓰듯 팰림세스트적인 시각으로 이전의 조직과 현대의 조직을 미래까지 살아남도록 새로 겹쳐 쓰는 도시 스케일의 작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옛것만이 아닌 겹쳐 쓰는 것. 이전의 조직만이 절대자가 아니라 현대와 미래의 생존가능성이 겹쳐지는 것이다.

남아있는 도시조직은 도보의 조직, 느린 움직임의 조직이다. 지형에 반응하고 그 시대의 물류와 산업에 반응한 조직이다. 궁궐이나 권문세가의 집이 아니라면 건물의 스케일도 그 세밀한 조직에 어우러지는 것에 족하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킨 산업화시기의 도시조직은 빠른 움직임의 조직이다. 큰 격자가 그것을 대변하고, 큰 매스의 건물들이 그 빠른 가로에 반응한다. 우리의 공간 유전자는 여전히 작은 골목들과 디테일과 세밀한 도시조직에 섬세하게 반응하지만, 새로운 도시공간의 플레이어들은 또 다른 종들이다. 도시 먹이사슬의 최 정점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유형이다. 궁전이나, 대통령의 장소, 상징광장, 자연발생적인 강자들은 지대부담능력이 우수한 리테일이다. 호텔들이다. 그리고 오피스들이다. 10년을 공전하다가 현재 개발의 타당성을 담보하게 구상된 세운4구역의 캐시카우는 6성급의 호텔과 프라임 등급의 오피스들이다. 이 주자들은 세계적 도시들을 서로 견주며 경쟁하고 서울 내에서도 몇 과 몇 개의 입지들과만 경쟁한다. 종묘를 곁에 두지 않으면 생존능력이 떨어지고 간선도로에 위치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기존 도시조직이 가지는 공간구획으로는 담지 못하는 메가 플랜의 새로운 유형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종들과 현대를 살아간다. 부티크 호텔과 6성급 호텔은 체급이 다르다. 스타트업 오피스와 도심의 프라임 오피스들은 서식지가 다르다. 도시는 적자생존의 생태계이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옛 도시조직이 담아내기 어려우니 새로운 레이어로 적층 되어야 가능하다.

기존 도시조직을 재생한 접지 층들을 살찌울 역할에는 리테일이 가능하고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면 무엇이 지속 가능한, 아니 생존 가능하거나 작동 가능한 중첩된 구조일까? 지상의 조직과 블록들이 수직적으로 뽑아 올리는 것으로 과연 충분할까? 가로의 단면이 세로로 극단적으로 늘려지면 작동 가능할까? 건축가들은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일정 전제 조건과 플레이어들을 상정하는 조건 속에서만 작동하는 도시공간이라면 무책임할 수도 있다. 이 시대의 기술과 상상력으로 좋은 실내 환경과 지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복원되고 재현된 도시조직은 빛과 바람에 자유로운 곳이어야 한다. 적절한 단면 스케일과 적절한 건물의 스케일이 중첩되지 않으며, 실내도 지하도 아닌 어두운 골목들은 구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곳에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유산에서 그 지혜를 뽑아내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도록 작동 가능한 유형과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재가 미래의 과거, 미래의 유산이 되도록 동시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용도 입지, 용도 유형, 건물의 스케일, 공간의 스케일 모든 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생동감 있는 입체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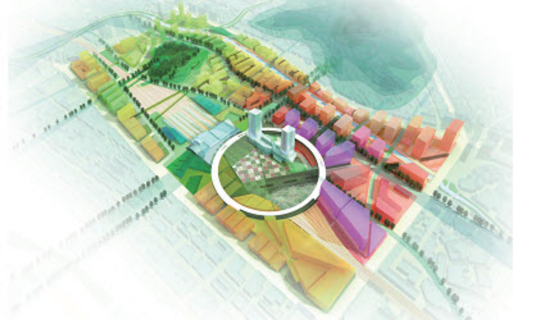
세운4구역은 정말 복잡하다. 수백 년을 살아남은 도시조직은 이곳을 해석하는 기반이다. 세운상가는 이웃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산업화의 유산인 이 건물 군이 당연히 이 재생의 시대에 미래자산으로, 이곳으로 주연 중 하나로 역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을 서울답게 하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는 이곳을 개발하는 가장 큰 위기 요소이며(무소불위의 문화재심의라는 과정을 통해)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종묘가 없다면 6성급 호텔이나 프라임 오피스가 도대체 가당키나 할까. 인공수로 청계천도 있는 그대로 보듬어야 하고, 광장시장의 매력은 여전하다. 나머지 세운구역들은 애매한 구성으로 박제화될 것 같다. 누가 이곳을 이끌 주연들인가? 서울시와 SH공사는 선의의 조력자 이상이 되기 어렵다. 사업의 숨은 주주인 지주들은 이곳의 삶의 주인공들이 아니고 이미 기다림에 너무 지쳐버렸다. 현재의 삶의 주인공들은 흩어졌고, 다시 탄생할 곳에 올 사람들은 관객이고 외부자들이다. 건축이 제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컨트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일이다.

미래의 우리 모두가 즐길 작은 도시조직과 건물들, 창의적인 플레이어들이 맡을 중간 스케일의 도시 공간과 건물들, 여전히 산업사회의 메가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메가 스케일 공간들, 이 모든 것들의 작동 가능성이 모두 어울려 살아나는, 그런 입체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김태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C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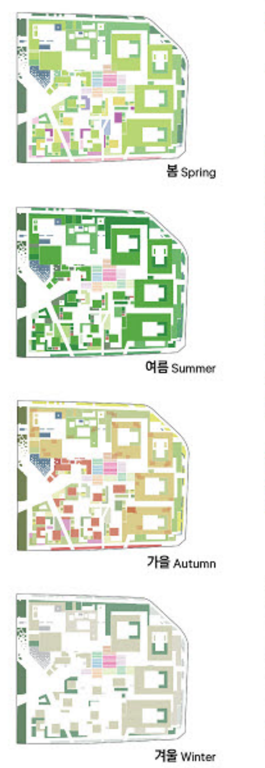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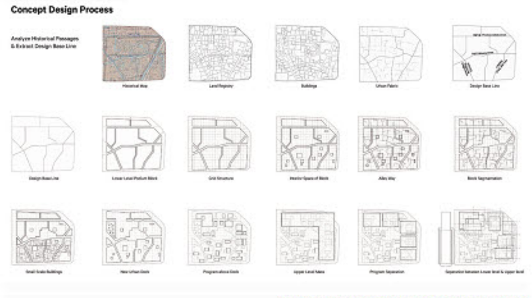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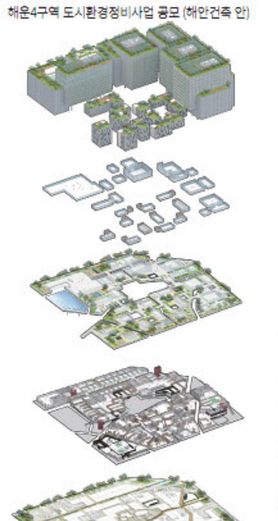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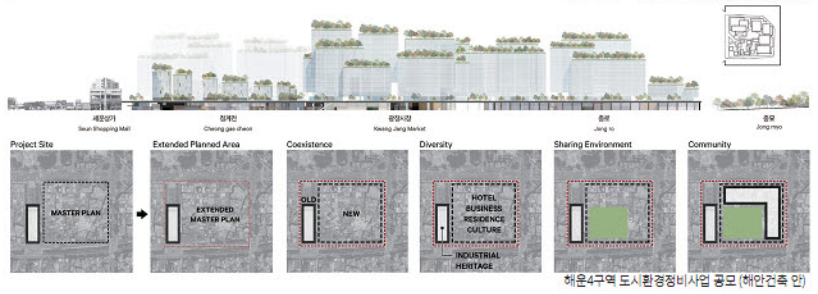
김태만 Taeman Kim 필자는 도시와 삶에 활력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건축, 도시, 조경 등 다양한 영역과 스케일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다. 해안건축에서 복합시설, 마스터플랜, 공공건축물 등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왔으며, 디자인 담당 대표로서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뉴욕 H Architecture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 연세대에서 설계스튜디오를 지도했으며, 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도시건축 스튜디오를 공동 진행했다. 다수의 AIA New York Chapter Award,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시건축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2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초대작가로도 참여하였다. 대표작으로는 행복도시 중심행정타운, 플로팅아일랜드, 서울추모공원 등이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사들이 입주하는 구역의 마스터플랜이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된 구역으로, 고리형 도시 개념을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적인 지구이다. 우리는 도시계획에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라는 세 가지 상호 상관성이 있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Flat City'는 평등을 의미한다. 아이코닉 평면(Iconic Plane), 즉, 정렬된 건물 지붕들의 물리적이고 개념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이곳은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화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상을 상징화한 것이다. 'Link City'는 중심행정타운을 연계하는 조직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Zero City'는 버리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계획안은 건축과 도시와 조경이 그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 역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
세운4구역 복합단지는 대지의 가장 큰 특징인 옛길-도시조직(Urban fabric)을 재생해 내는 것에서 이 단지의 독창성과 차별함을 찾을 수 있다. 도시조직은 단순히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친밀감을 주며, 대규모 건물과 광장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사적인 영역성을 제공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사람들에게 유대감과 소통을 촉진하고, 사적 영역성과 다양한 감성적 요구들을 보완해주는 도시공간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21세기 현대 도시 생활에서, 사회적 교류와 도시 삶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으로서 도시조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현할 '도시의 다양성'은 마스터플랜의 디자인 개념이다. 두 가지의 방식으로 도시조직의 특징을 적용하였다. 하나는 물리적인 공간조직으로 도시조직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관계성과 다양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의 하부구조는 도시조직(Urban fabric)의 특징인 다양한 길의 조직과 공간형태 그리고 공간규모들을 도입해 친밀감과 소통, 사적인 영역성과 감성이 극대화되는 일상적인 도시구조와 같은 기반을 만들었다. 상부에 배치될 오피스 호텔 등 어가 프로그램들이 하부구조와 결합되는 접점 영역에는 중간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배치해서 스케일을 전이시키며, 하부구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상부 프로그램들에도 개별 프로그램들의 기존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관계성과 삶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공간들을 만들었다. 대지 내의 중요한 요소인 도시조직(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운상가와의 확장된 마스터플랜이라는 디자인 전략을 통해 공생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 베트남 다낭시 다먹 국제신도시 마스터플랜
다먹 국제 신도시는, 베트남 다낭시 내 매립사업으로 새로운 국제 업무환경과 정주환경, 관광환경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존 도심과 긴밀한 관계, 도심시설 및 서비스를 집적화, 다양성의 장려, 공공장소의 연결성, 자연친화 등의 디자인 원칙에 따라 계획되었다. 국제업무지구는 집적된 도심서비스 시설과 쾌적한 수변 공간이 계획되었고, 문화주거복합지구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집객시설이 조성되고, 동시에 고층주거 복합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추었다. 단독주택지구는 해안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 국제적 수준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안까지 보행자도로로 연결하여 공공의 해안 접근을 장려하였다.



해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모 (해안건축 안)